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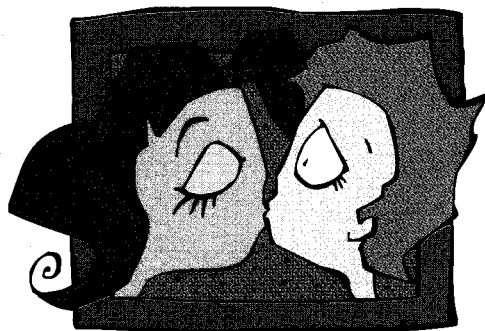
Q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사실 나는 하루종일 성(sex)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러는 내가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 비정상은 아닌지 걱정도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A 또래의 친구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의 뒷모습을 훑쳐보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성과 관련지어 생각하기도 하고 야한 장면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르노 잡지를 보면서 킁킁거리기도 합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성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남학생은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포르노 잡지 등 섹스에 관한 잡지를 즐겨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 큰 호기심을 갖거나 강한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사회는 성에 대한 관심을 금기시하는 분위이기 때문에 그 호기심을 속으로 삭히거나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표출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성적인 것에 대하여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 표출하면 안되

제가 이상한가요?



청소년 성·생식보건 100문 100답 중

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을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에 대한 적절한 환상은 건강하고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행위의 상대가 되는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성에 대한 관심만으로 여성을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여성과의 진실한 관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Q

성적 욕구가 생겼을 때 참기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이 있나요?

A

우리 사회에서는 사춘기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 욕구의 해결이라는 면에서만 보면 차라리 조혼이 이루어졌던 옛날을 부러워하는 청소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적 욕구를 해결하지는 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와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성적 욕구는 그 욕구의 표현이나 성행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욕을 건전한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에는 성적 욕구에 대한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즉 공부에 관심을 돌려 열중하거나 스포츠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잘 안되면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거나 운동을 하기도 하고 혼자가 아닌 공공의 장소로 바꾸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남녀가 함께 하는 과외 활동, 가령 학교나 사회단체, 교회 내에서의 집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특기를 살리고 연마하는데 힘쓰는 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적 욕구는 자아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상대방의 의지를 존중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PKK